#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1조원 지원

## 올해보다 14%가량 늘어… 고용창출 · 성과공유 등 고용지표 개선 ·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 도입

내년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자금으로 올해보다 14%가량 늘어난 1조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사업별 지원내용 등을 담은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다른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 1조917억원이다. 올해 지원금액인 9601억원보다 13.7% 증가한 규모다.

내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도록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R&D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등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기업인 '첫걸음기업'으로 선정해 목표를 관리하는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를 도입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와 관련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대해 중점적을 투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창업기업 전용 R&D를 올해 1976억원에서 내년 2727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시 면책하는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화,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해 R&D 지원을 하는 등 지역 클러스터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등 R&D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D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체성분 측정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 등이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바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이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중기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하림, 장애인 복지시설 삼계탕 점심 나눔 행사 개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점심 나눔 행사를 개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우 및 가족, 직원들과 온정을 나누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하림 육가공 FS사업부 소속 임직원이 직접 복지관을 방문, 하림 고향삼계탕과 용가리치킨, 치즈스틱 제품을 지원하고, 장애우들과 식사를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우와 가족을 포함, 총 110여 명이 무료급식을 제공 받았다.

한편 ㈜하림은 복지관 직원들의 방문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직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림 고향삼계탕 제품을 무상 지원하기도 했다.

㈜하림 육가공 박준호 본부장은 "연말을 맞아 임직원이 함께 자사의 제품으로 많은 분들께 잠시나마 작은 위로를 전해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행사 이후에도 임직원들과 함께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보다 많은 곳에 의미 있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올 연말정산 이렇게

##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올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신한 · 국민카드 "포인트로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 중단"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5일 "고객 적립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시기는 신한카드 1월 15일, KB국민카드는 1월 22일부터이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두 카드회사는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 판(FAN)의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준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에서 보유한 포인트리 1000점 이상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앞서 현대·하나·BC·신한·롯데카드는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두 달여 만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당시에도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사면 카드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됐다. /뉴시스

## 코트라 "내년 수출 4.8% 증가 '6064억' 달러"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보다 4.8% 증가한 6064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KOTRA)는 지난 22일 김재홍 사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 바이어, 지상사 등 662개 정보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내년 수출입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시장에서는 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산업 성장이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신흥시장에서는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개발정책의 덕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양주지역은 올해 선박류 수출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 중동은 유가회복 지연 및 정치 불안 우려로 각각 수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시스

# 은행권 신용대출금리도 올라

## 11월 주요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전월 대비 최대 0.27%p 상승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 데 이어 신용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주요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 평균치(신용등급 전 등급)는 전월 대비 최대 0.27%p까지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이 3.72%로 전월보다 0.27%p, 신한은행은 4.21%로 0.22%p, KEB하나은행은 4.86%으로 0.19%p, 농협은행은 3.73%로 0.14p씩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0.18%p 오른 3.88%, 케이뱅크는 0.22%p 오른 4.89%로 나타났다.

이같은 일반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상승은 전월 시장금리 상승세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 한달간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0.1%p 넘게 상승했다. 은행권은 그밖에 상품별, 등급별 복합적인 요인도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한다.

등급과 상품 종류에 따라 일괄적 비교는 어렵지만 이같은 전반적인 대출금리의 상승추세는 자연스레 가계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월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우려는 한층 커진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1월중 금융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19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폭 증가다.

한편, 이미 주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 혼합형)는 지난주 초를 기준으로 0.15%p 가량 오르며 최대 4.5%대를 넘어 선 바 있다.

역시 예금금리가 오르는 등 조달비용이 늘어나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2년만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11월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77%로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달에 비해 0.15%p나 올라 상승폭도 가팔랐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